

**2011.07.18 미래정책연구실**

※ 본 자료는 지난 7월 1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2020년 목표치 신규 설정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**'15년 목표치 재설정 및 '20년 목표치(안)**

**1. 곡물자급률**

※ ( '10) 26.7% → ( '15 목표) 30.0, (기준 25) → ( '20 목표) 32.0

○ 식용(가공용 포함)만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률과 기존의 곡물자급률 2가지로 구분하여 곡물자급률 산출을 합리화

\* 곡물자급률 : 쌀, 맥류, 콩, 옥수수, 서류, 잡곡 등 전체 양곡 대상으로 산출

○ 식량자급률(식용곡물) 목표치를 신설, 기존 곡물자급률과 병용

- 식량자급률 : ('10년) 54.9% → ('15년) 57 → ('20년) 60

○ 조사료 포함 곡물자급률 신설, 포괄적인 곡물자급률 정도를 표시

- 조사료 포함 곡물자급률 : ('10년) 37.6% → ('15년) 45 → ('20년) 50

○ 곡물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사료에 대한 자급률 신설

- 사료자급률 : ('10년) 37.5% → ('15년) 41.2 → ('20년) 44.4

**2. 칼로리자급률**

※ ( '09) 50.1% → ( '15 목표) 52.0, (기준 47) → ( '20 목표) 55.0

○ 식생활 패턴·소비형태를 고려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2015년 1인 1일 권장열량은 1,992kcal로 설정(기존 2,036kcal)

- \* 1,992kcal : 한국영양학회 “한국인의 영양섭취 기준”을 바탕으로 산출
- 권장열량 만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리과정의 감모 등을 감안, 1인 1일 2,590kcal 공급 필요(기존 2,750kcal)
- 단백질(P), 지방(F), 탄수화물(C)의 이상적인 구성 비율은 각각 20%, 15%, 65%로 설정(\* P : F : C = 20 : 15 : 65)

**3. 곡물자급률**

※ ( '10) 27.1% → ( '15 목표) 55.0 → ( '20 목표) 65.0

○ 자급률 개념을 '국내생산 + 해외 안정적 확보가능성'으로 확대,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·유통하는 물량까지 포함.

◇ 현재 원유·가스·광물에 대해 **자주개발률\*** 개념을 적용 중  
\* 소비량 중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·생산하는 물량 비율

○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(곡물유통회사)을 통해 생산·유통되는 물량을 포함하는 곡물자급률 지표를 새로 설정

\* 곡물자급률 = [(국내 생산량+해외 생산·유통량)/국내 소비량]×100

- '15년 491만톤, '20년 643만톤 생산·도입 목표치 적용

구 분	해외농업개발	곡물조달시스템	합 계
'15년	91만톤	400만톤	491만톤
'20년	138만톤	505만톤	643만톤

**4. 주식자급률**

※ ( '10) 71.7% → ( '15 목표) 70.0, (기준 54.0) → ( '20 목표) 72.0

\* '08·'09년 쌀 연속 대풍으로 인해 주식자급률은 ('08) 64.6% → ('09) 70.3% → ('10) 71.7%로 지속 상승 → ('11) 쌀·밀 흉작으로 인해 대폭 하락 예상

○ 쌀 자급수준 유지, 국산밀 생산확대 및 쌀로 밀가루 대체 적극 추진 등으로

주식자급률을 높게 유지

- '15년 밀자급률(사료용 제외) 목표를 기존 1%에서 10%로 10배 상향조정

\* 기존 주식자급률 : (06) 65.9% → (07) 64.6 → (08) 64.6 → (09) 70.3 → (10) 71.7

○ 보리는 1인당 소비량이 1.3kg(10년)에 불과하여 주식 개념에 부적합하므로 주식자급률 산출대상에서 제외

< '15년 목표치 재설정 및 '20년 목표치(안)>

품 목	'10년	'15년 목표치		'20년 목표치 (신 설)
		기존	재설정	
곡물자급률 *사료용 포함	26.7	25.0	30.0	32.0
- 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	37.6	-	45.0	50.0
식량자급률 *식용곡물	54.9	-	57.0	60.0
곡물자주율 *해의곡물 포함	27.1	-	55.0	65.0
주식자급률 *쌀+밀(+보리)	64.6 (08년)	54.0	70.0	72.0
칼로리 자급률	50.1 (09년)	47.0	52.0	55.0
쌀	104.6	90.0	98.0	98.0
보리	27.8	31.0	31.0	31.0
밀	1.7	1.0	10.0	15.0
콩	31.7	42.0	36.3	40.0
서류	98.7	99.0	99.0	99.0
사 료	37.5	-	41.2	44.4
- 배합사료	24.7	-	24.2	24.6
- 조사료	82.0	85.0	87.0	90.0
채소류	89.3	85.0	86.0	83.0
과실류	81.1	66.0	80.0	78.0
육 류	72.0	71.0	71.4	72.1
- 쇠고기	43.2	46.0	44.8	48.0
- 돼지고기	80.9	81.0	80.0	80.0
- 닭고기	79.7	80.0	80.0	80.0
우유 및 유제품	65.4	65.0	65.0	64.0
계란	99.8	100	99.0	99.0

\* 곡물자급률은 곡물전체(사료용 포함)를, 식량자급률은 식용곡물만을 대상으로 산출

\*\* 주식자급률 '15년·'20년 재설정 목표치는 보리를 제외한 수치임

\*\*\* 보리, 밀, 콩은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자급률임

\*\*\*\* 사료자급률은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생산량 소비량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

## □ 식량자급률 제고방안 주요 내용

### ○ 농지이용계획 수립, 논밭 기반정비와 논 이용 다양화

- 품목별 대책을 연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

※ ①는 소득기반 다양화, ②조사료·주요곡물 생산 확대, ③겨울철 유휴농지 활용, ④채소 생산·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『농지이용계획』에 통합관리

- 지자체 농지이용계획을 활용, 농지이용 다각화 및 효율성 제고

- 논에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적정량 생산 및 식량자급률 제고

※ '13년까지 매년 논 4만ha 타작물 재배, 소득차 지원(300만원/ha)

※ '14년 이후 전용단지(가공용·사료용 벼, 콩 등) 조성위주 운영

- 경쟁력 제고 및 영농편의 증대를 위한 밭기반 정비 및 기계화 촉진

※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우수개발, 농로 정비·포장 등 기반정비 실시로 영농환경 개선, 농산물 품질 제고 등 농가소득 증대

### ○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 농지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품목별 생산 확대

- '15년까지 추가로 유휴농지 164천ha에 밀·조사료·녹비작물 등 재배 추진, 겨울철 논 재배면적을 581천ha로 확대

- 동계 녹비작물 재배 확대 : ('10) 138천ha → ('15) 190 (+52)

- 품목별 생산 확대 추진

※ (곡물류) 논에 콩과 사료작물 등 재배확대, R&D 강화,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, 가공·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산확대

※ (채소류) 생산기반 정비, 계약재배 확대,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

※ (과실류) 생산기반 확충, 수출확대, R&D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

※ (축산물)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가축질병 예방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에 중점

○ 남는 쌀과 조사료를 활용한 곡물 수입수요 대체

- 조사료 급여 확대로 곡물사료 수요대체(사료용 64만톤 수입 축소)
  - ※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급여비율 개선
  - ※ TMR 사료급여 두수확대(TMR 사료급여시 두당 0.22톤/년 수준의 사료 곡물 절감 가능)
  - ※ 이를 통해 사료원료 642천톤(2,094억원) 수입축소 효과기대
- 밀가루 대체용 쌀가루 생산·소비 확대
  - ※ '08~'12년까지 5년간 정부양곡을 밀가루와 비슷한 수준인 355원으로 할인 공급
  - ※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가공업체의 자체 원료조달체계 구축 뒷받침
- 쌀가루·밀가루 분리 유통에서 혼합 유통체제로 전환
  - ※ 우선 음식점·제과점에 쌀밀가루(쌀가루 혼합 밀가루)를 저가로 직공급하여 초기시장 형성 후 가정용 등 밀가루 전체로 확대
  - ※ 쌀밀가루 유통으로 쌀 소비확대, 밀 수입대체 및 물가안정 도모
- 콩두부를 쌀두부로 대체(콩 7~14만톤 수입대체)
  - ※ 공공부문부터 콩두부를 쌀두부로 대체후 일반소비로 확산
  - ※ 쌀가루 20% 혼합시 연간 7만톤 쌀소비 확대 가능(40%포함시 14만톤 소비대체)
  - ※ 쌀두부는 콩두부에 비해 저렴(15~20%)하여 경제성, 경쟁력 보유
- 가공산업 육성, 식생활교육 확대, 원산지표시제 확대,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식품소비 촉진
  - 농어업인이 가공품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 확충 및 창업·초기경영 활성화 지원
    - ※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조달, 제조가공, 기술개발을 연계하는 “농·공

· 상 융합형 중소기업”을 육성

- 식품가공 R&D 투자확대로 '17년 선진국 80% 수준으로 향상
  - ※ 기능성 식품 등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에 집중 지원
  - ※ 식품분야 R&D 투자규모를 타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
- 2020년까지 식품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추진
  - ※ aT 유통교육원을 식품전문인력 중심기관으로 육성
- 식품관련 모태펀드 확충 등 금융지원 체계 확립
  - ※ 식품모태펀드 : ('10) 250억원 → ('20) 최대 2,500억원
- 건강과 환경, 전통에서 장점인 우리 농식품을 활용한 한국형 식단을 소비자의 요구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·보급
-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, 두부 등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 및 소비촉진 계기로 활용
  - ※ '12년부터 음식점에서 찌개·전골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와 수산물 6개 품목까지 원산지 표시 확대
-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과 지역생산 농산물(로컬푸드) 이용 확대로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소비촉진 유도
  - ※ 지자체의 친환경·품질인증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
-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 식량 도입체계 구축
  - '18년까지 주요 곡물(밀·콩·옥수수) 수입량의 10% 수준인 138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38만ha 규모의 농지 확보 추진
  - 민간주도 개발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기획 진출 추진
    - ※ 정부간 협상으로 대상부지를 확보하고 농어촌공사·기업 등이 민간·공공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농장을 개발
  - 유통공사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, 해외에 곡물회사를 설립하고 필요곡물을 직접 도입하는 국가곡물조달체계 구축

- ※ 총 사업 규모 2,986억원 : 공사(40% 1,230) 민간(60% 1,756)
- ※ 추진방식 : 국내 컨소시엄 구성 → 해외 현지법인 설립 → 산지·강변  
·수출 Elevator 시설 및 유통물량 확보 → 국내 도입
- ※ 수입 의존도가 큰 밀, 옥수수, 콩을 도입대상으로 '15년까지 400만톤(연간 수입량의 30%) 규모의 자체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
- ※ 곡물 유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에 우선 진출하고, '12년 이후 브라질·우크라이나·연해주 등에도 진출
- '11.4월에 기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산지 Elevator, 수출 Elevator 등의 현지 유통시설 확보 중
  - ※ '11년 중 식용 콩·옥수수 각각 5만톤을 현지 구입, 국내 조달
  - ※ '11년 투자규모(470억원) : 유통공사(40%, 200억원), 민간(60%, 270억원)
  - ※ 컨소시엄 참여 민간 기업 : 삼성물산(마케팅), 한진(육상운송), STX(해상운송)
- 미국에 이어 브라질·연해주 등 곡물메이저의 영향력이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확대전략 수립('12년부터 본격 진출)